

반갑다 야구야! 오늘부터 시범경기

‘메이저리그 유턴파’ 박병호·김현수·황재균
류중일의 LG·한용덕의 한화 등 기대감 높아

긴 겨울잠을 자던 프로야구가 13일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지를 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파로 시범경기가 축소(팀당 8경기) 되긴 했지만, 어느 때보다 볼거리는 풍성하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국내 복귀한 박병호(넥센 히어로즈), 김현수(LG 트윈스), 황재균(KT wiz)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공교롭게도 세 선수의 소속팀인 넥센(7위), LG(6위), kt(10위)는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올 시즌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세 팀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한 다.
4년(2012~2015)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을 석권하고 메이저리그로 떠났던 박병호는 당장 2018시즌 홈런왕 1순위로 꼽힌다.

2년 사이에 팀의 주축 거포로 성장한 김현수가 박병호와 만나 일으킬 파괴력은 벌써 기대를 모은다.
김현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LG와 손을 잡았다.
김현수가 KBO리그에서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두산 베어스의 ‘열집’으로 동지를 옮기면서 가뜰이나 라이벌 관계인 LG와 두산의 ‘잡살 더비’는 더욱 흥미로워졌다.
김현수는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17~18일 잠실에서 두산과 시범경기 2연전을 치른다.
김현수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LG가 치른 연습경기 7경기에 모두 출전

해 타율 0.353(17타수 6안타)에 2홀런 4타점을 수확하며 ‘타격기계’의 성능을 확인했다.
황재균 역시 김현수와 마찬가지로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가 아닌 kt와 계약했다.
kt는 창단 이후 가장 많은 돈(4년 88억원)을 투자해 황재균을 영입했다.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의미다.
kt는 창단 첫 외국인 타자인 앤디 마르테가 떠난 이후 주인이 사라진 3루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kt는 삼고초려 끝에 황재균을 영입하며 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
LG와 한화 이글스가 새로운 사령탑

과 어떤 변화를 보여줄 지도 관심사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 술한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류중일 감독은 LG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최정상급 대우를 받으며 현장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현수라는 확실한 취입 선물을 받긴 했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약재가 연달아 쏟아지고 있다.
류중일 감독이 이형종이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으로 중도 귀국하고, 차우찬은 팔꿈치 통증 때문에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투명하다.
내야 수비의 중심인 유격수와 2루수 주전이 누가 될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류 감독은 시범경기를 통해 포지션별 주전을 확정하고 류중일과 차우찬이 빠진 선발 자리를 대체할 후보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명망이 높은 한용덕 감독은 친정팀으로 돌

아와 프로 첫 감독직 수행에 나선다.
든든한 보좌진과 함께다. 한화는 장종훈과 송진우 등 이글스 출신 ‘레전드’ 코치진을 결성했다.
이글스 출신 코치진이 열여덟살 새로운 한화의 모습에 한화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 시즌 KBO리그에서 뺄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새 얼굴은 13명이다. 이중 지금까지 가장 눈길 가는 얼굴은 NC 다이노스의 대만 출신 좌완 투수인 왕웨이중이다.
왕웨이중은 스프링캠프 기간 3차례 실전 등판에서 총 7이닝 7피안타 9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대만 출신이라는 색다른 이력과 잘생긴 외모에 강속구까지 장착한 왕웨이중은 양현중(KIA 타이거즈)-김광현(SK 와이번스)의 좌완 에이스 대결에 도전장을 던진다.
/연합뉴스



‘오벤저스’ 4연승 12일 오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 한국과 캐나다전에서 4연승을 이룬 한국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컬링 대표팀 4전 전승

캐나다에 7-5 승리...1차 목표 4강 진출 가시권



‘컬링 오벤저스’로 불리는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캐나다까지 제압하고 지금까지 4전 전승을 거뒀다.

백종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캐나다와 예선 4차전에서 7-5로 승리했다.
한국은 미국과 ‘패럴림픽 중립선수단’(NPA·러시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캐나다까지 차례대로 물리치면서 4전 전승을 기록했다.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의 1차 목표는 11차례의 예선 경기에서 7승 이상을 거둬 준결승(4강)에 오르는 것이다.
남은 7차례의 예선 경기에서 3승 이상만 거두면 1차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간다는 평가다.
이날 한국은 1엔드에서 3점을 뽑으며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했다.
3엔드에는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4엔드에서 1점을 올렸다.
캐나다는 5엔드에 2점을 뽑아 4-3으로 추격했지만, 한국은 6엔드에 3점을 올려 7-3으로 달아났다.
이후 7엔드에 2점을 허용했지만 8엔

드에 추가 실점하지 않으면서 7-5로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이날 오후 7시 35분부터 독일과 예선 5차전을 치른다.
지난달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여자 컬링대표팀 ‘팁 킵’이 있었다면 패럴림픽 대표팀은 5명의 성이 전부 달라 오성(五姓)에 오벤저스를 합친 ‘오벤저스’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한편, 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유망주 권상현(21)은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최장거리 종목에서 12위에 올랐다.

권상현은 12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20km 입식 경기에서 53분 21초 60이 기록으로 18명의 선수 중 12위를 차지했다.
그는 초반 4.32km까지 14위에 처했지만, 경기 중반 스피드를 올리며 9.28km 구간에서 1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어 순위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 36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스노보드 국가대표 박수혁(18)은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상지장애(SB-UL) 부문 경기에 나섰다. 전체 22명의 선수 중 21위에 그쳤다.
같은 종목에 참가한 박상훈(31)이 1차 레이스에서 실격하는 바람에 박수혁은 패럴림픽 첫 무대에서 최하위를 면했다.
/연합뉴스



무등중학교가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끝난 제12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 KIA기 호남 중학교 야구 우승 총장중 7-5 제압...김녹원 최우수선수

무등중학교가 제12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총장중을 7-5로 제치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예선전에서 나주 영산중과 세지중을 차례로 꺾고 준결승에 오른 무등중은 화순중을 10-2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여세를 몰아 결승전에서까지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무등중은 2015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지난 5일부터 광주, 전남·북 지역 10개 중학교가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

로 승부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우승팀인 무등중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3위는 화순중과 동성중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는 무등중 김녹원이 선정됐다.
우수투수상은 김대홍(무등중), 타격상은 최우혁(무등중·0.687), 최다안타상 문동주(무등중·7안타), 홈런상 신명승(진흥중·1개), 최다루상 윤도현(무등중·10개), 최다타점상 강지운(무등중·6타점), 수훈상 백진수(무등중), 감투상 서영진(총장중) 그리고 미기상은 박도현(총장중)에게 주어졌다.
/최진화 기자

신태용호 유럽 평가전 유럽파 총출동

손흥민 기성용 포함...홍정호·박주호 재발탁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재현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유럽파를 앞세운 최강 전력으로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선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24일 북아일랜드와 28일 폴란드로 이어지는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설 태극전사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손흥민(토트넘)과 득점력이 살아난 ‘중원의 조율사’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비롯해 차세대 스트라이커 자원이인 황희찬(잘츠부르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권창훈(디즈) 등 유럽파 선수들이 총망라됐다.
여기에 해외 생활을 접고 K리그 무대로 복귀한 중앙 수비수 홍정호(전북)와 왼쪽 풀백 박주호(울산)도 지난해 6월 이후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면서 수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대표팀은 오는 19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동해 22일까지 훈련한 뒤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옮겨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11시 원지파에서 북아일랜드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이어 경기 당일 곧바로 폴란드로 이동해 카토비체 주 호주프에서 훈련을

신태용호 유럽평가전 대표팀 명단
24일 오후 11시 북아일랜드 대표팀, 28일 오전 3시 45분 폴란드 대표팀과 평가전

FW
김신욱(전북),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이근호(강원)

MF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빗셀 고베), 박주호(울산), 이상민(제주), 권창훈(디즈),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염기훈(수원)

DF
장현수(FC도쿄), 윤영선-김민우(상주), 홍정호-김민재-김진수-최철순-이동(전북)

GK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김승규(빗셀 고베), 조원우(대구)

/연합뉴스

하면서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3시 45분 폴란드 대표팀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르고 귀국길에 오른다.
신 감독은 지난달 24일부터 독일 2부 분데스리가의 지동원(다름슈타트),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황희찬(잘츠부르크) 등을 점검하면서 명단 조율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신 감독은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황희찬, 권창훈 등 유럽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유럽파 5명을 호출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나상호·김동현 U-23 소집

김학범 감독 29명 전원 K리그서 호출



나상호 김동현

광주FC 나상호(22)와 김동현(21)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우승에 도전하는 김학범 U-23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김학범 U-23 대표팀 감독은 오는 19~26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되는 소집훈련에 참가할 29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학범 감독은 그동안 K리그 경기를 찾아 선수들을 점검한 뒤 이번 소집훈련에 나설 선수들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29명 전원을 K리그 소속

선수로 뽑았다. 해외를 돌 소수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 기간이지만 공식경기를 치르지 않아 부르지 않았다.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본선에 참가한 선수는 강현무(포항), 황기욱(서울), 한승규(울산) 등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이 새로운 얼굴이다.
김 감독은 “부임 이후 첫 소집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많은 29명의 선수를 선발해 개인별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겠다”라며 “이번 훈련에서는 팀이 나아갈

방향을 숙지시키고 포지션별로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집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하나씩 정해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기로 했다”라며 “첫 소집은 ‘선수들이여, 맹호로 거듭나라!’로 정

했다”고 덧붙였다.
◇ U-23 대표팀 3월 소집훈련 명단(29명)
▲ GK= 강현무(포항) 송범근(전북) 박대환(전남)
▲ DF= 윤종규 김한길(이상 서울) 이우현(전남), 김진야 김정호(이상 인천) 이상민(울산) 김우석(대구) 정태욱(제주) 강지훈(강원) 조유민(수원 FC) 김문환(부산)
▲ MF= 황기욱(서울) 윤용호 전세진(이상 수원) 장운호(전북) 한찬희(전남) 이광혁(포항) 김건우 한승규(이상 울산) 나상호 김동현(이상 광주) 황인범(아산) 김진규(부산)
▲ FW= 이근호(포항) 이은범(제주) 박인혁(대전)
/연합뉴스